

## 신사업 핵심기술 확보... '월드 퍼스트' 도약

### 효성



효성은 2018년 'World Best, World First'라는 목표 아래 최고의 품질과 차별화된 기술 확보를 최우선 경영과제로 설정했다. 중공업 PG 전력 PU(PU장 문섭철·사진)는 이를 위해 '혁신과 차별화'를 통한 새로운 도약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다.

지난 50여년간 축적된 효성만의 노하우와 품질·고객 관리를 뛰어넘어, 기존과 차별화된 제품, 품질, 영업 및 관리 방식 등 혁신을 실천하는 해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변압기와 차단기, 전장 등 기존 주력제품의 기존 핵심시장 수성과 신규시장을 지속적으로 개척해나가면서 신사업 품목도 국내 점유율 확대와 북미, 유럽 등 신규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해 생산부문에서는 품질·원가 경쟁력 강화 및 차별화된 기술 확보, 생산성 향상, 영업부문에서는 시장조사 활동 강화, 현지 영업 강화,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영업활동을 기본 방향으로 삼을 방침이다.

기술개발과 R&D 부문에서도 효율적 전력 생산 및 소비를 위한 스마트그리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추세에 따라 친환경 가스 및 소재를 적용한 차단기와 변압기 개발, 다양한 DC(직류) 제품 확대, 디지털 변전소나 배전망 자동화 기술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신사업 분야의 핵심기술 확보와 연구개발 역량도 강화하겠다는 각오다. 문섭철 효성 전력PU장은 "전력보상장치, 신재생에너지 관련 신사업 등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단기간에 국내외에서 큰 성과를 보이며 성장하고 있다"며 "2018년에는 국내 시장 점유율



을 확대하고, 북미, 유럽 등 기존에 진출하지 못했던 새로운 해외 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효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게 전력 운영체제와 상위 IT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에서 지향하는 OT(Operational Technology)와 IT 융합을 추진하고 있다.

또 시스템 관점에서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및 솔루션 제공을 가능하게 하는 통합 시스템인 변전소 및 전력기기 등의 생애주기(Life cycle) 동안의 체계적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구축했다. 이외에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운영 및 진단알고리즘, 수명예측, 에너지 절감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 등 고급 분석 알고리즘을 접목해 보다 최적화된 솔루션을 공급해나갈 계획이다.

문섭철 효성 전력PU장은 "올해도 시장 침체와 중국, 인도 등 저가업체의 공격적인 시장 확대로 어려운 사업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객의 소리를 이해하고, 이를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반영해 일차적으로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고객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송세준 기자 21ssj@

## IIoT시장의 강한 리더십 쪽

###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글로벌 에너지관리·자동화 전문기업 슈나이더 일렉트릭(대표 김경록·사진)이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기술을 활용한 '에코스트럭처(EcoStruxure)'를 통해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빌딩, 데이터센터, 공장, 전력망 등의 에너지 효율, 안전성, 신뢰성, 생산성을 높여나간다.

여기에 수처리, 발전 등 새로운 사업영역까지 비즈니스를 확장, IIoT 시장에서 강한 리더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슈나이더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에너지 공급체계를 만들고, 인류의 풍요와 지속가능한 삶을 돕는다는 '라이프 이즈 온(Life is On)' 브랜드 전략을 실현해 나가겠다는 것이 목표다.

에코스트럭처는 일찍부터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해온 슈나이더의 역작이다.

에코스트럭처는 4차 산업혁명으로의 진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통합 아키텍처 플랫폼으로, 슈나이더만의 스마트공장 개념인 '트랜스패어런트 팩토리(Transparent Factory)'를 구현해준다.

에코스트럭처는 특히 빌딩부터 선박, 발전소, 공장까지 전력을 사용하는 모든 곳의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 운영을 최적화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쏟아지고 있는 동종업계 여러 IIoT 통합 아키

텍처와도 차별화된다.

키넥티드 제품과 에지(Edge) 컨트롤, 어플리케이션, 분석 및 서비스 등 3단계로 구성된 통합 솔루션으로, 다양한 제조사의 시스템을 상호 운영이 가능하도록 통합해주며, 기업 차원의 자산과 에너지 성능 관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해 사용자가 더 나은 비즈니스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슈나이더는 에코스트럭처를 통해 고객의 '모든 단계에서의 혁신(Innovation at Every Level)'을 실현해나갈 예정이다. 슈나이더는 이와 함께 새해 스마트그리드, 스마트공장 등의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측, 관련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최고문 슈나이더 일렉트릭 코리아 본부장은 "국내 시장에서 스마트 그리드 구현을 위한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IIoT를 활용하면서 건물 내 냉난방설비, 데이터 센터 관리, 에너지저장장치(ESS),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위한 사업이 확대될 것이다. 슈나이더가 보유하고 있는 고품질·고성능의 광범위한 에너지 솔루션을 바탕으로 국내 시장을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슈나이더는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의 협력업체로, 스마트 공장을 위한 자산관리, 사이버보안, 연결성, 안정성을 위한 솔루션을 선보이고 있다"며 "모든 솔루션과 제품이 오픈 플랫폼으로 타사 제품과도 호환 가능하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큰 규모의 스마트 공장은 물론이고, 공정의 일부분을 최적화하는 시장도 적극 참여해 나갈 것이다. 장기적인 플랜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프로세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과 구축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ube@



## '카멜레온' 같은 변화 예고

###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



글로벌 공정 자동화 전문기업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대표 총천화·사진)가 2017년의 부진을 털고, 새롭게 도약하기 위해 '카멜레온'과 같은 변화를 예고했다.

2017년 에머슨은 저유가 영향으로 인한 중동 EPC 시장 침체와 정부의 석탄화력 축소 기조 등으로 발전, 오일&가스 등 주력 시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EPC들의 타깃 시장이 중동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겨가면서, 현지의 정치·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프로젝트 지연·취소 등이 빈번해지면서 에머슨뿐 아니라 공정자동화 시장이 전반적으로 악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장기간 진행해온 여러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수월하게 진행되고, 고객과의 상생 협력 관계가 지속되는 등 주요 사업 기반을 지킨 것은 에머슨의 2018년도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에머슨은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패러다임 전환에 맞서 카멜레온처럼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환경 변화를 쫓아가기보다 에머슨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이 만들어낼 새로운 시대를 선도해나갈 것이라는 구상이다. 고객들이 보다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정보를 얻고 최대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플랜트 웹 디지털 에코시스템(Plantweb Digital Ecosystem)' 등 산업용 사물인터넷(IIoT) 기반의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혁신적인 솔루션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플랜트 웹 디지털 에코시스템은 디지털 자동화 전문 기술을 바탕으로 표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스마트 계기들을 통합한 공정 제어 네트워크로, 공정자동화 산업에 IIoT를 실현할 수 있는 디지털 인텔리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필드 디바이스와 제어, 안전, 자산관리, 서비스, 컨설팅 등 공정 자동화 전단계의 운영 혁신을 이끌 수 있으며, 최적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얻을 수 있는 강력한 IIoT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에머슨은 이와 함께 글로벌 공정자동화 기업 중 국내 기반이 가장 크다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나갈 계획이다.

에머슨은 고용창출, 자금흐름 등 비슷한 규모의 한국 기업 이상으로 국내 산업·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 글로벌 기업 현지화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장점을 바탕으로 고객은 물론이고 협력사 등 주변 이해관계자들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상생 생태계'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특히 국내 EPC들이 진출하지 못했던 해외 시장을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발굴, 국내 기업들과 동반 진출하는 등 동반성장을 실현해나갈 것이라는 얘기다.

김병일 기자



## 공정 자동화 분야를 선도하고 전세계 1000GW 전력생산을 지원하는 Emerson, 이제는 기술을 넘어선 신뢰입니다.

플랜트의 성공은 올바른 자동화 전략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화력, 수력 및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Ovation™ 전문가 제어 시스템은 에머슨이 글로벌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경험의 집약입니다. 기존 플랜트를 개선하든, 새로운 플랜트를 건설하든, 전 세계 자동화 솔루션을 선도하는 이름은 단 하나 - 바로 에머슨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EmersonProcessPower.com/1000GW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VATION™

BETTER TOGETHER



EMERSON

에머슨 오토메이션 솔루션즈  
Tel. (02)3438-4600 www.emersonprocess.co.kr

Emerson, Ovation, Ovation Blackline, Co의 상표 및 서비스마크입니다. ©2017 Emerson Electric Co. Ovation 및 Ovation Blackline는 Emerson Process Management의 상표입니다.

EMERSON. CONSIDER IT SOLVED.

謹賀新年  
2018